



별들의 전쟁 ‘마스터스’ 오늘 밤 개막 탱크 최경주, 우즈와 맞붙는다

내일 1·2R 같은조서 플레이...양용은은 미켈슨과 한조

‘결론은 우승 경험 많고 노련한 아시아계 스타’
‘탱크’ 최경주(40)가 제40회 마스터스골프대회에서 돌아온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동반 플레이를 펼친다. 우즈의 복귀전 첫 파트너가 누가 될지 대회 개막 전부터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는 7일(이하 한국시각) 최경주와 우즈, 매트 쿠차(미국)를 1, 2라운드 파트너로 정하는 등 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최경주는 1라운드인 9일에는 오전 2시42분, 2라운드는 9일 오후 11시35분에 각각 경기를 시작한다. 8년 연속 마스터스에 출전하는 최경주는 통산 13번째 우즈와 같은 조에서 경기를 펼친다.
보도진과 갤러리가 집중적으로 몰려드는 우즈의 복귀전 1라운드 파트너는 최경주에게 ‘영광’이기도 하지만 큰 부담이기도 하다.

최경주는 일찌감치 우즈의 1라운드 파트너로 물망에 올라 있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소란스러운 우즈의 복귀전 파트너로 노련한 베테랑을 원했고 특히 부쩍 아시아 선수를 배려해왔던 최근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최경주는 “14번홀에서 연습 라운드를 하고 있을 때 마스터스 관계자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다”며 “많은 갤러리 앞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PGA 챔피언십 우승자 양용은(38)은 세계랭킹 3위 필 미켈슨(미국), 로버트 앨런비(호주)와 8일 오후 11시35분 티오프한다.
지난주 셀 슈스턴 오픈 우승으로 상승세를 탄 재미교포 앤서니 김(25·나이카골프)은 우즈와 함께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는 어니 엘스(남아공), 일본의 슈퍼스타 이시카

■마스터스 주요 조 편성		
8일 밤 11시 13분	앤서니 김, 엘스, 이시카와 료	
8일 밤 11시 35분	양용은, 미켈슨, 앨런비	
9일 새벽 2시 42분	최경주, 타이거 우즈, 쿠차	

와 료와 동반 플레이를 펼쳐 많은 관심을 받게 됐다.
앤서니 김의 1라운드 경기 시작 시간은 8일 오후 11시 13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코리아 3인방’이 이번 대회에서 가장 뜨거운 시선을 받는 빅스타와 동반 플레이를 치르는 셈이다.
생애 처음 마스터스에 출전하는 나상욱(27·타이틀리스트)은 9일 0시19분 샌디 라일(스코틀랜드), 저스틴 레너드(미국)와 1라운드를 시작한다. 지난해 US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자 안병훈(19)은 지난해 마스터스 챔피언 양헬 카브레라(아르헨티나), 짐 퓨릭(미국)과 8일 11시 24분 티샷을 날린다.
/연합뉴스

■ 최경주 인터뷰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마스터스골프대회에 출전한 ‘탱크’ 최경주(40)는 8일(이하 한국시각) 시작하는 1라운드에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동반 플레이를 펼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잘 됐다.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경주는 7일 양용은(38), 지난해 US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자 안병훈(19) 등과 연습라운드를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갤러리들이 우즈가 편성된 조에 집중적으로 몰려 중압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어느 조가 됐든 갤러리들이 몰리게 마련”이라며 “특히 골프를 매우 잘하고, 집중력도 좋은 선수와 같이 경기를 할 경우 다른 선수들도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경주는 이어 “2년 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1. 라운드 때 우즈와 한조에서 맞붙어 나는 2언더파, 우즈는 4언더파를 친 것이 가장 최근 우즈와 함께 한 경기인 것 같다”면서 “우즈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크게 걱정하지 않으며, 중압감을 느낄 이유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경주는 지난해 6월 메모리얼토너먼트 3라운드에서도 동반 플레이를 치렀지만 당시 성적에 따라 자연스럽게 같은 조에 편성된 것이었다. 최경주는 “마스터스 대회에서 우즈가 복귀전을 할에 따라 그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등 분위기가 약간 그

“우즈와 맞대결 오히려 잘돼

내친김에 우승 노력하겠다”

렇기는 하지만 개의치 않는다”면서 “현재 컨디션이 매우 좋은 상태이며, 특히 퍼팅 스피드와 분위기도 살아나는 등 아주 좋아지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경주는 또 “이번 대회는 드라이버샷은 큰 문제가 안되며, 아이언과 퍼터 싸움이 될 것”이라며 “일단 톱10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승도 기대하고 있고, 저 또한 준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온 만큼 우승도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 마스터스 우승자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대회 우승자는 평균 7번째 출장에서 ‘그린 재킷’을 입었다고 PGA 투어 공식 홈페이지가 7일(한국시각) 보도했다.
모든 골프 선수가 평생 한 번 입어보고 싶어하는 우승자의 녹색 ‘그린 재킷’을 입는 것은 정상급 선수에게도 쉽지 않았다.
평균 7.25번째 출장에서야 겨우 정상에 설 수 있었다는 것도 그나마 우승자에게 해당하는 말일 뿐이다.
세계적인 골퍼인 ‘호주의 백상어’ 그렉 노먼과 US오픈에서 1988년, 1989년 2년 연속 우승한 커티스 스트레인지(미국) 등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도 마스터스대회와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우즈의 정선적인 스승 마크 오메라(미국)도 15번 문을 두드리 끝에 1998년 끝에 그리

평균 7번째 출장서 ‘그린재킷’

우즈 4회·니클라우스 6회 우승

던 그린 재킷을 입었다.
필 미켈슨(미국)도 이 대회에 우승까지 12번이나 출전해야 하는 등 세계 최고의 골퍼에게도 마스터스대회가 열리는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은 만만하지 않았다.
하지만 퍼지 조엘러(미국)가 1979년에 신인으로 처음 그린 재킷을 차지한 것처럼 첫 출전에 우승하는 이번도 있었다.
마스터스대회와 특히 궁합이 잘 맞는 선수도 있었다.
1997년 21살 때 이 대회에서 첫 우승하며

세계에 이름을 알린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통산 4차례 우승했으며 ‘황금곰’ 잭 니클라우스(미국)는 이 대회 최다 우승자(6회)로 이름을 올렸다.
1995년 우승자인 벤 크렌쇼(미국)는 대회가 열리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에 대해 “그린에 브레이크가 있고 페어웨이를 따라 바람이 출른다”며 쉽지 않은 코스라고 지적했다. 오메라도 “우즈가 ‘코스’에 좀 별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첫 도전에 우승하기 어렵다”며 “퍼트를 잡지 못한다면 우승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학구장

외야에 뜬 공

뚝 떨어지네



SK가 올 시즌 문학구장 잔디밭에서 야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한 ‘그린존’. 외벽 일부를 허물면서 외야 바람이 거세져 문학경기장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관중석·외벽 허물고 ‘그린존’ 신설... 변화무쌍 바람에 선수들 실책(?)승부 변수로

‘바람’이 문학대결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2009 한국시리즈에서 7차전까지 가는 대접전을 벌였던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가 6일 주중 3연전에 돌입하면서 올 시즌 첫 합계투구를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20일 문학구장에서 한국시리즈 4차전을 치렀던 KIA 선수단은 오랜만에 찾은 문학구장에서 바람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SK 와이번스가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학구장은 고지대에 위치해 바람이 세기로 유명한 곳이다. ‘바람의 구장’ 문학에 올 시즌 더욱 바람이 거세졌다.

SK는 올 시즌 좌익수 뒤쪽 관중석 일부와 외벽을 허물고 잔디밭에서 야구를 관람할 수 있는 ‘그린존’을 신설했다. 소

풍 나온 기운으로 색다르게 야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팬서비스의 일환이지만 외벽이 사라지면서 외야의 바람은 더욱 변화무쌍해졌다.

2010시즌 문학에서의 첫 경기를 치른 KIA 외야수들은 플라이를 처리한 후 하늘을 잠시 올려다 보는 등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SK 외야수 김강민과 박재홍은 6일 경기에서 이종범의 플라이를 쫓다 둘 사이에 공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기록상으로 는 2루타로 남았지만 실책성 타구였다.

외야진의 났을 뺄놓는 주범은 바로 문학구장의 바람이다. 통산 550경기에 출전해 단 2개의 실책만을 기록하고 있는 ‘수비의 달인’ 김원섭은 “맞바람이 불어 앞으로 가서 잡으려

고 하면 그새 홈런바람이 불기도 하고 바람의 변화가 심하다”며 “나구지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전노장 이종범에게도 문학의 바람은 심상치 않다.

이종범은 “다른 구장 기준으로 플라이가 더 밀려올거라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데 공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등 수비하기가 쉽지 않다”며 “원래 바람이 많이 부는 구장이기는 하지만 올해는 더 변화가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선 분명 부담스러운 문학의 바람이다. 그러나 ‘한방’이 있는 선수들에게는 행운의 홈런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고마운 바람이 될 수도 있다.

올 시즌 문학대결에서는 바람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로 이웃사랑 실천

KIA·기아자동차 직원들

‘타이거즈 러브 펀드’ 선택

KIA타이거즈와 기아자동차가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타이거즈 러브 펀드(Tigers Love Fund)’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타이거즈 러브 펀드’는 KIA 선수들과 기아차 직원들이 경기 기록에 따라 일정액을 적립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즌 종료 후 적립된 기부금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김상훈, 최희섭, 김상현, 이용규, 나지완, 안치홍(이상 타자)과 유동훈, 서재웅, 윤석민, 광정철, 손영민(이상 투수) 등 11명이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팀의 ‘V11’을 기원한다.

최희섭, 김상현, 나지완은 홈런 1개당 5만 원을 적립하고, 이용규는 안타 및 도루당 2

만원, 안치홍 역시 안타 및 도루당 1만원을 적립하고 주장 김상훈도 도루 저지 때마다 5만 원을 모을 예정이다.

서재웅과 윤석민은 1승당 10만원, 유동훈은 1세이브당 5만원, 광정철과 손영민은 1승 및 1홀드당 각각 3만원과 2만원을 적립하게 된다.

‘타이거즈 러브 펀드’를 위해 기아차는 4월 한 달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2010시즌 중 후원 선수의 경기성적에 따라 월단위로 기부금을 적립, 시즌 종료후 선수들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할 계획이다.

주장 김상훈은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타이거즈 러브 펀드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팀 V11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MLB 외국인선수 보유

도미니카 1위·한국 11위

2010 미국프로야구(MLB) 메이저리그 개막전 로스터와 부상자 리스트에 오른 833명 중 미국 이외 국가에서 태어난 외국인 선수는 27.7%(231명)로 집계됐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MLB.com)는 7일(한국시각) 외국인 선수 비율이 작년(28%)

보다 약간 줄었다고 밝혔다. 점유율이 가장 높았을 때는 2005년 시즌(29.2%)이었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이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네수엘라(58명), 푸에르토리코(21명), 일본(14명), 캐나다(13명), 멕시코(12명), 쿠바(7명), 파나마(5명), 호주(4명), 대만(3명) 순이었다. 박찬호(37·뉴욕 양키스)와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보유한 한국은 콜롬비아, 니카라과 등과 공동 11위였다.
/연합뉴스